

「간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10회)

朴魯哲

(二)印度敎 中心 思想 概觀

(4)誠律簡要

이 詩에 이서 보아도 牧牛에 對한 觀念이 顯著이 드러남을 알 수 잇스니, 古 婆羅門種姓을 牧牛에 比하여 雨神『인드라』에게 發願함을 보면 당시 牧牛에 對한 崇拜熱이 至大함을 斟酌한다. 四種姓중에 第一位에오르는 婆羅門僧侶를 牧牛에 比較한 것부터 그 얼마마한 價値가 잇슴을 엿 볼 수 잇는 것이 아니라. 現代印度에서 農牧을 注重하는것처럼 古代에도 印度民族은 農民을 가장 主要한 業務로 생각 하였다. 이리하여 『아리안』이란 名稱은 『耕作者』의 義로도 볼 수 잇스니, 卽 『아리아』(Arya)는 『다-사』(蠻族Dasas)種과 區別하는 말로 되었다. 印度는 이제부터 征服者와 被征服者의 區別을 生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튜라니안』(Juranian)種族은 『아리안』種族과는 좀 달리 農耕보다도 牧畜에 注重한바 卽 『튜라니안』이란 種名은 『早移』의 義로 보게 된다. 이가튼 例에 引徵하더라도 印度民族과 農牧業과는 因緣이 깊다고 본다. 이리하여 古代로부터 印度民族은 自然에 對한 趣味가 豊富하였다고 봄은 吠陀중에 田園의 神을 咏讚한 讚歌에 依하여보아도 알 수 잇는 것이다. 後世에 이르러 印度文學의 大部分이 田園生活을 核心으로하여 歌詩를 咏頌한 것으로나 또는 現代의 『타고-어』 등의 田園時文의 作品이 만함을 보아도 斟酌할수 잇스니 이는 上古理具吠陀의 讚歌에 依한 그 影響이 적지 안타고 본다.

(自古로印度에서는 牧畜을 意味한 神『후-시안』(혹은 日神을 崇拜하든바 이는 日天『웨시뉴』(Vishnu)와 가티 본대 太陽에 關한 神이엇스나 그후 牧畜의 神으로 또는 移住를 保護하는 神으로 혹은 營養神으로 섬겨 왔다. 古印度民族은 五河地方에 土着한 후로부터 水草를 따라 移住하면서 農牧生活을 營爲하였으매 그들은 일즉 上世로부터 四隣에武威를 크게 設치면서 黑□의 異族을 征服하기에 汲汲하든 勝利의 種族임으로서 당시 僧侶(婆羅門族)와 함께

刹帝利(王士)階級을 尊重이 보았든 것이다)

이를 다시 佛敎의 五戒(판차실라Pan-cha Sila)即 殺生, 偷盜, 邪淫, 妄語, 飲酒에 比하여 보아도 그 類似한 點을 알 수 있으며, 또는 八戒(아시-타느가 · 실라(Ashtanya Sila)에 關한 香油塗身, 歌舞觀聽, 高廣大床 等이다. 혹은 十戒(다사 · 실-라 Dasa Sila)에 關한 非 時食, 捉金銀寶 等に 있어 보아도 類似한 點이 만타고 본다.(佛敎의 十戒의 條目으로는 殺生, 偷盜, 邪淫, 妄語, 飲酒, 香油塗身, 歌舞觀聽, 高度大床, 非 時食, 捉金銀寶 等이니, 이중에 五階級八戒가 包含되었다)본이 佛敎의 戒律은 五戒八戒十戒 以外에도 別달리 具足戒의 이름을 가진 二百五十戒 또는 四百八十戒 等이 있다.

(基督, 瞿曇(Gantama釋迦)이 獨身主義로 貫徹하니만치 『칸디』역시 獨身主義를 實行함을 보면 이역 그 克己에 있어서 共通되는 點이 있다고 본다. 무론 悉達多나 칸디는 이미 娶妻하였으되 그 成道 할 때에는 홀애비(禁慾者로서)나 진배 업시 獨身生活을 主張한 것이니, 톨스토이가 그 老齡에 있어서 妻子들과 隔離하여 獨身으로서 僑寄한것도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잘 하서 칸디의 獨身과 基督, 瞿曇의 獨身生活이 서로 共通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獨身生活은 宗教的 聖哲의 地位에 있어서의 그토록 稀罕한일은 아니니 例컨대 現時 天主教 神父들의 그 獨身生活도 그에 比肩될만하다고 본다)